



# 미국 초호화 유람선 '노티카'호 인천항 입항

##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 바다 위 특급호텔



바다를 떠다니는 특급호텔인 초호화 유람선이 3년여 만에 인천항에 입항했다.

미국 오서니아크루즈사 소속의 유람선 노티카호(3만277t급)가 3월14일 오전 승객 581명과 승무원 404명 등을 태우고 인천항 1부두에 입항했다.

호화 유람선이 인천항에 입항한 것은 지난 2003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길이 181m, 폭 25m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노티카호는 실내에 극장과 갑판 수영장, 노천 사우나, 나이트클럽, 카지노, 피트니스클럽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첨단 호화유람선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중장년층으로 이뤄진 유람선 승객들은 서울 인사동과 경복궁, 임진각 등을 관광할 예정이다.

노티카호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짧은 일정을 마감하고 인천항을 출항해 다음 기항지인 중국 천진으로 향한다.

노티카호는 이곳 천진에서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킨 뒤 새로운 여행객들을 태우고 오는 18일 다

시 한번 인천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노티카호의 인천항 첫 기항을 기념하기 위해 박용문 부사장 등이 배에 올라 환영의 뜻을 밝힌 뒤 꽃다발과 기념패 등을 전달했다.

### 광양항국제포럼 4월19일 광양시에서 개막 300여명의 국내외 해운물류 전문가 참여

전라남도와 광양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공동으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해운물류 학술대회인 광양항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광양항국제포럼은 미국 연방해사청의 General Council인 Amy LARSEN, 세계 최고의 물류전문학술지인 Transportation Research의 편집위원장인 Wayne Talley 교수, 대만의 중화항운학회의 린 광(LIN Kuang)회장, 일본해운경제학회 야마기시 부회장, 홍콩해운학회의 응 지미(NG Jimmy)회장, NYK의 정기선부문 상무인 우수이(USUI),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Hietbrink 학장 등 세계해운물류계의 전문가들이 대거참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해운물류학회(회장 윤일현)가 주관으로 개최되는 4회 광양항국제포럼은 30여명의 해외 물류전문가와 300여명의 국내 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매 2년마다 열리는 광양항국제포럼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물류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